타이거즈, 사자 앞에만 서면 호랑이 '고양이'

'우승후보' KIA 의 몰락 이유 5가지

6위 KIA는 삼성전 7연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후반기 일정을 구상했다. 1위 삼성은 KIA가 아닌 주말에 만나게 될 LG와의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광주를 찾았다. 결과는 KIA의 참패였다. 필승카드로 내어놓은 김진우·윤석민이 팀을 대표하는 선수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팀에 패배를 안겼다. 팬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줬다.

사자앞에 서면 더욱 초라해지는 호랑이들. 삼성과의 승부에서 KIA의 약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① 마무리 없는 마운드 전력 불균형

'지키는 야구'는 올 시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기의 마운드 시작점은 마무리다. 스프링캠프의 화두는 '마무리'였다. 마무리라는 조각을 찾느라 마운드의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진우의 마무리 구상이 부상으로 무산된 뒤 외국인 선수 앤서니가 급히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앤서니 카드는 계속된 9회 대란 속에 실패로 끝났다. 불붙은 타력으로 띄어놓은 초반 분위기는 마운드 난조에 급격히 꺾이고 말았다.

삼성이 오승환이라는 특급 마무리 카드를 중심으로 2000년대 강자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지만 KIA는 마무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매년 같은 고민을 반복 하고 있다. 한기주가 부상으로 빠진 뒤 시작된 마무리 문제. KIA의 2013시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숙제다.

해줘야 하는 선수들의 무기력한 모습도 아쉽다. 이번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은 KIA의 4강 향방이 걸린 중요한 일전이었지만 김진우와 윤석민은 침착하지 못한 승부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믿었던 선발 카드가 일찍 무너지면서 경기도 참담한 패로 끝났다.

② 2군 육성 소홀 깜짝스타 없어

KIA는 지난 6월28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정병곤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정병곤은 올 시즌 LG와의 트레이드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3년차 무명선수. 첫 안타가 끝내기 안타가 되면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됐고 KIA는 치명적인 1패를 더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김상수가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유격수로 무등경기장을 누볐다.

7월31일 홈경기에서는 성의준이 깜짝 스타가 되며 KIA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5회 박석민의 대주자로 들어간 성의준은 이지영의 안타로 득점을 기록한 뒤, 타자일순해 타석에서 타점까지 더하는 진기명기를 연출했다. 성의준에게는 프로 세 번째 경기였다. 톱타자 배영섭이 시리즈 첫 날 초구에 다리 부상을 당하여 결장했지만 그 빈틈에는 진흥고 출신의 정형식의 알토란 같은 활약이 있었다.

잘 나가는 삼성의 질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깜짝 스타와 백업 요원들이다. 삼성은 선수발굴과 육성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중 가장 먼저 2군 육성 시설을 만든 팀이다. 1990년부터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탄탄한 선수층을 과시하고 있다.

KIA는 오는 8월 정식으로 함평 전용구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2군 육성을 위한 통큰 투자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몇 년 간 KIA 2군은 불모지와 같았다. 결국 침체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깜짝 스타는 커녕 주전선수들의 빈 자리를 채울 백업 요원도 마땅치 않은 상황. 그만큼 주전 선수들의 부상 여파는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③ 끝없는 '부상과의 전쟁'

2차 드래프트로 삼성으로 이적한 투수 신용운은 기나긴 부상에서 탈출해 친정팀 킬러가 됐다. 7월31일까지 KIA전 4경기에 등판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탈삼진도 5개를 기록했다.

신용운은 KIA의 마운드 암흑기 시절을 책임지느라 팔꿈치와 어깨 등 세 차례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비운의 선수였다. 계속된 재활에 결국 40인 보호 선수에서 제외되며 삼성의 선수가 됐다.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재기였지만 신용운은 삼성 불펜의 주요 전력이 됐다.

신용운의 부활에는 삼성 트레이닝 센터(Samsung Training Center·STC)가 있다. STC는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꾸려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활훈련 기관이다. 야구 뿐만 아니라 배구, 농구 등 삼성 소속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이곳에서 합숙을 하며 체계적인 재활을 하고 있다. 부상으로 인한 손실은 그만큼 최소화 됐고 전문적인 관리로 전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다.

선수층이 얇은 만큼 부상은 KIA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올 시즌에도 부상의 화살은 피하지 못했다. 윤석민·김진우·서재응이 부상으로 삐걱거렸고 김원섭(발목), 양현종(옆구리)의 부상도 치명타가 됐다.

재활 과정을 넘지 못하면서 추억의 선수로 사라지는 이들도 많다. 취약한 재활 시스템에 대한 보강도 절실하다.

④ 선수들 자신감도 벤치 전략도 없다

탄탄한 선수층은 치열한 경쟁의 바탕이 되고, 경쟁은 자연히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삼성의 치열한 내부 경쟁은 끈질긴 승부와 자신감 있는 대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상대의 빈틈을 파고 들기 위한 전력 분석도 선수들에게는 큰 무기. 삼성은 앤서니를 투수습관으로 공략했다. 흔히 말하는 '쿠세'를 무기로 해 한발 앞선 승부를 했다.

팬들은 처절한 분석과 집요한 승부로 상대를 괴롭히는 타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올 시즌에도 극과 극의 모습이다.

삼성 윤성환과 장원삼은 올 시즌 KIA 타자들을 상대로 각각 3승을 챙겼다. 윤성환은 0.78의 방어율로 완봉승 포함 3승을 올렸고, 장원삼도 초반 불안불안한 피칭에도 불구하고 2.08의 방어율로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웃었다. 번번이 같은 선수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팬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공격패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의 한 투수는 "KIA가 약한 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올 시즌 더 까다롭다. 하지만 다른 팀 타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승부하기는 편하다. 타자들이 주로 바깥쪽 위주의 승부에 치중하는 모습인데 투수 입장에서는 복잡한 계산 없이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⑤ 위기에 더욱 약한 코칭스태프

부상 등의 돌발 변수는 매 시즌 피해갈 수 없다. 올 시즌에는 9구단 체제에 따른 휴식기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시즌 운영에 대한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벤치의 대처는 미흡했다.

5월 휴식기 이후 3연전에서 LG에 싹쓸이 3연패를 당한 KIA는 6월 휴식기 이후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1무1패를 기록했다.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7월 휴식기 이후 성적도 패였다. 올스타브레이크 뒤 LG와의 첫 3연전도 1승2패였다.

경기 속 위기 극복에도 실패했다. 9회 4·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경기의 흐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벤치의 이렇다할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악몽 같은 역전패가 연달아 써졌다. 1점을 짜내지 못하면서 양현종과 윤석민은 8이닝 1실점 완투패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꾸준함을 이어가는 데도 실패했다. 요동치는 타순과 방망이, 투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도깨비팀이 되고 말았다.

긍정의 힘도 부족했다. 초반 고공행진 속에서도 윤석민의 부상 등을 염두에 두며 '5할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말이 씨가 되고 말았다. 7할대의 승률은 5할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KIA 감독

■ 올시즌 맞대결 성적

KIA Tigers VS SAMSUNG Lions

1차전	4월 26일	0-6
2차전	4월 27일	5-1
3차전	4월 28일	1-4
4차전	5월 10일	0-3
5차전	5월 11일	1-9
6차전	5월 12일	4-5
7차전	6월 28일	5-6
8차전	6월 29일	2-4
9차전	6월 30일	3-10
10차전	7월 30일	5-8
11차전	7월 31일	4-16

■ KIA 월별 승률

4월	0.700
5월	0.391
6월	0.526
7월	0.357

■ 양팀 맞대결 기록

	KIA	삼성
안타	86	109
홈런	6	12
득점	30	72
타율	0.239	0.292
방어율	6.25	2.57

지난 31일 경기에서 홈 쇄도 중 태그아웃 되고있는 KIA 윤완주.

山 넘어 山

밀레「한국명산 16좌 원정대」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참조)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 후원 : 광주일보사

열여섯번째 산행 8월 23일(금) / 무등산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신세계광주점 062-360-1253 이울렛 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 062-616-2221 악산팔봉아울렛점 063-838-9293 밀레광주아울렛점 062-385-5555 NC순천 061-726-5417
직영점 광주직영점 062-266-8848 대리점 밀레전주효자점 063-272-3668 밀레군산수송점 063-445-4747 밀레전북남원점 063-626-7889 밀레전주중앙점 063-255-0789 밀레전주중화산점 063-229-7676
밀레익산팔봉점 063-838-9293 밀레전북김제점 063-544-7651 밀레익산중앙점 063-852-7447 밀레전주송천점 063-276-3031 밀레광주직영점 062-266-8848 밀레목포하당점 061-282-8523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전남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주진월점 062-674-5888 밀레광주첨단점 062-973-7775 밀레전남여수점 061-666-1921 밀레전남순천점 061-745-306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양칠성점 061-761-7524 밀레전남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전남영광점 061-352-7070 밀레해남점 061-535-5425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고객문의 02)306-7033 •대리점개설문의 02)3153-3203